

장로 1 팀 단기선교 사역 보고서

1. 기 간 : 2013 년 06 월 18 일(화) ~ 2013 년 06 월 26 일(수) (8 박 9 일)
2. 국가/사역지역 : 미얀마(Myanmar) 흐머비(Hmawhi)지역
3. 교구/교회학교 : 장로 1 팀
4. 팀 장 : 윤 병 식 (서명) 서기 : 이 희 우 (서명)
5. 보고일자 : 2013년 06 월 30 일
6. 보고내용 :

절	람	당	분과장	위원장
서			(인)	(인)

1. 사역에 대한 총평	※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면 미얀마(Myanmar)땅은 복음화 될 것이다. (동남아 다른 나라보다 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복음을 받았다) ※ 200년 전에 복음이 전파된 관계로 가는 곳마다 교회 있었다, (양곤 시내에 신학교가 있다) ※ 현지인과 주일 예배는 은혜가 넘쳤다. ※ 예비된 영혼들이 사역지 마다 있었다,
2. 추천할 내용	※ 계속해서 기도하고 중단없는 선교가 되도록 가는 선교사가 많으면 좋겠다,
3. 회개할 내용	※ 인간의 계획을 먼저 생각하고 행할 것을 회개한다. (사역 7일 짜 고등학교 사역을 돌아오면서 하기로 한 것)
4. 선교위원회앞 건의사항	※ 현지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중,장기 선교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 외선부 출신 현지인을 적극 활용 방안 간구가 시급한 것 같다,

7. 현지 정보

• 정치/경제	군사과도정부, 경제는 우리나라 70년대 수준으로 계속 발전중임	• 종교상황 • 치안상황	불교89%,기독교6%이슬람4% 어려움 없음.
• 성경/찬송가/지도 구입경로	지도는 선교위에서 복사한 것으로 사용.		
• 교회에서 배운 선교언어 현지인의 이해 정도	대부분 잘 이해 했다, "잠시 시간 좀 내주시겠습니까?"말에는 반응이 없다, 그 이유는 항상 시간이 있기 때문인지 무반응		
• 운전기사 성명 및 추천 여부	성명	서 씨와(Say Wha)	
1일 비용	\$ 100	☎	094-211-30539
총 비 용	\$ 800	이메일	없음
기사평가	지속적으로 사역 동역자로 가능함,		

8. 추천하고 싶은 숙박시설에 대한 정보

도시 및 호텔명	요금(USD)		시설내역(유/무)		☎ 또는 이메일
Yangon	2인실	30	온수	X	☎ 01-524498
Silver Moon	3인실	35	냉방	0	
Hotel			조식	0	
Maubin	2인실	20	온수	X	☎ 045-30086,422495514
Shwe Thiri	3인실		냉방	0	
Guest House			조식	X	
Yangon	2인실	30	온수	X	☎ 09-43337777, 09-73154673
Shwe Pyi San Yar	3인실		냉방	0	
Hotel			조식	0	
숙소 평가	선교하기에는 적합함				

9. 사역 경로

사역지	숙소에서 이동거리(KM)	이 동 소요시간	사역지 향후 전망 및 현지인 반응	교회 유무	전도방법
1.Maubin(마우빈) 지역					
Maletto 마을 북쪽방면	10km	30분	매우 긍정적이며 친절함	유	학교전도,축호,노방
Maletto 마을 남쪽방면	10km	30분	매우 부정적이며 거부함	무	축호,노방
Maubin 시내 중심지	4km	15분	50% 정도 긍정적	유	축호,노방
Yele 수상마을	20km	50분	70% 정도 긍정적	무	축호,노방
2.Hmawbi(흐머비) 지역					
Thar Yar Gone 마을	30km	45분	매우 긍정적	무	축호,노방
San Pya 마을	28km	40분	긍정적	무	축호,노방
Thanlyin 마을	49km	70분	80% 긍정적	무	축호,노방
Taikkyi 마을 (시내 중심쪽)	50km	90분	50% 긍정적	무	축호,노방
Taikkyi 마을 (Hmawbi 쪽)	53km	90분	50% 긍정적	유	축호,노방
Dissu 마을	53km	90분	50% 긍정적	무	축호,노방
Hmawbi 지역 동쪽방면	70km	110분	매우 긍정적	유	축호,노방
Hmawbi 지역 남쪽방면	40km	60분	긍정적	무	축호,노방

10. 향후 인터넷 선교 가능한 피 접촉자 정보

성명	E-Mail 주소	영어능력(상/중/하)
Nilar win	beauty 606602@ g-mail.com	하
Hnin Yee Hlaing	lovertheinthein@ g-mail.com	하
Naw Maw Maw	Lnawmaw 80 @ g-mail.com	상
Hlaing	zawminlay. zml@ g-mail.com	상
Saw Thar	chitchitmee @ g-mail.com	상

11. 소감문 및 회계자료 (첨부)

팀장: 윤 병식 장로

사역 1일째 (06월18일 화)

말씀과 섬김으로 하나된 우리는 성령이 허락하신 사역지를 향해 주신 “허락한 땅에 오직 생명력있는 예수 그리스도만 심고 오라”는 주님의 음성을 묵상하며 성령의 인도따라 가길 원하며 첫 걸음을 내딛었다.

사역 2 일째 (06월19일 수)

성령은 우리들에게 흐머비(Hmawby)에서 마우빈(Maubin)지역으로 변경해서 허락하셨다. 마우빈(Maubin)지역을 두고 팀원들이 3 개월 동안 기도한 지역이 인간의 계획에 인해 출발 일 주일 전에 변경했지만 성령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성령의 계획대로 마우빈(Maubin)지역에서 사역을 시작했다, 초등학교에 방문해서 내일 와서 복음을 전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고, 축호전도, 노방전도를 통해서 만날 예비된 영혼들을 보고서 이곳까지 인도하시는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2 일째날 사역이었다.

사역 3 일째 (06월20일 목)

말라두(Moletto)초등학교에서 300명 정도 학생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열정적인 선교사님들의 모습과 그 말씀을 듣는 어린 이방인들의 눈동자가 함께 하니 오직 예수님만 있는 현장이었다, 또 다른 대원들은 학교 주변 동네를 다니면 축호전도, 노방전도로 은혜가 넘치는 오전 사역이었다, 오후에는 수상가옥과 척박한 동네 엘리(Yele)에서 복음을 전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귀를 기울이는 그들의 모습에 나의 나태한 신앙생활을 뒤돌아보며 주님을 따르는 종의 모습으로 살겠다고 회개하며 결심하는 3 일째날 사역이었다.

사역 4 일째 (06월21일 금)

식당과 호텔 종사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허락하신 흐머비(Hmawby)로 향했다, 장대같이 내리는 비속에서도 주님이 예비해 놓은 16세 애 산다르(Ate Sund Naing)란 소녀는 TV를 보고 한국말을 배웠다며 약간은 어려움은 있었지만 오래 간만에 본국어로 그녀에게 복음을 전했다, 나의 언약함(미안마어)을 아시고 그녀에게 한국어로 복음을 전하게 하신 성령님께 감사하면 4일 째 사역을 마쳤다,

사역 5 일째 (06월22일 토)

아! 덥다, 그러나 말씀을 들고 가야한다, 성령이 허락하신 보육원으로. 그곳에는 25 명의 어린 영혼들에게 말씀과 기도와 우리가 준비해 간 찬양으로 그들의 마음을 열게하니 그들이 우리들에게 자기들의 찬양으로 우리 어여쁜 천사들의 모습을 보여 주었다, 보육원장선생님은 “이 어린 아이들이 불타(불교)의 자녀에서 지금은 다 주님을 영접했다고 하니 이것이 바로 할렐루야! 오후 사역지에서 교회를 보았다,(100년 된 교회) 그러나 그 주위에 사는 사람들이 주님을 믿지않고 있었다. 40대 아주머니의 손을 잡고 복음을 전할 때 처음에는 거부하는 모습에서 아멘으로 영접하는 심령, 초등학생들에게 한국어로 ”예수 믿으세요“를 가르쳐 ”더킨예슈고 용지바“와 ”예수 믿으세요“외치며 온 동네를 다녔다, 이 모습에 자꾸만 눈물이 나온다,

사역 6 일째 (06월 23일 주)

주일이다, 주일예배를 드리고 우리들에게 운전으로 동역하는 서싸와(Say Wha) 집으로 가서 그의 일행 4명과 함께 현지어로 예배를 드렸다, 한국어로 설교하면 미얀마어로 통역 설교를 하니 지금까지 한번도 못해 본 사역이라 은혜가 넘치는 주일이다,

사역 7 일째 (06월 24일 월)

제 3 의 사역지 타이키(Taikkyi)를 향해 가는 도중 고등학교를 보고 돌아오면서 사역하기로 하고 마을로 향했다, 그 마을에서 사역이 끝난 즈음 예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 그 동네 최고 지도자가 나타나 우리들을 검문하는 것이다, 잠시 긴장을 했지만 이 나라 법에는 복음을 전하고자 하면 허가를 받아야 한단다, 그것을 알게 하신 주님! 너무 사역이 잘 되어 교만할 뻔한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했다, 이곳에도 참 오랜 된 교회가 있었다, 두 명의 자매가 온 동네를 우리와 같이 다니면 복음을 전했고 교회 앞뜰에서 서로 손잡고 통성기도하니 이곳이 바로 천국이구나, 돌아오는 길에 고등학교에는 교통경찰들이 있어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 이것이 인간의 계획과 주님의 계획이 다름이 아닐까?인간의 생각을 먼저한 것을 회개하는 하루였다.

사역 8 일째 (06월 25일 화)

사역 마지막 장소는 미얀마 최고의 엘리트들이 다니다는 양곤(Yangon)대학교를 갔다, 이 나라를 이끌어 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이들이 변화 되어야 미얀마 땅이 빨리 복음화 되겠다는 기도로 사역을 시작했다, 영어로, 미얀마어로 복음을 전하니 참 좋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이 지나면 이곳에서 만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그리며 고국에서 이 미얀마 땅이 주의 나라로 변화되길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나의 모습을 그려보며 장로 1팀 미얀마 단기선교 사역은 주님이 계획하시고, 행하시고, 모든 영광은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이 사역을 마쳤다.

총무: 안 연식 장로

이번 선교 기간 동안 우리 팀원 모두가 가장 먼저 내놓은 기도제목은 인간된 우리 자신의 안목이 아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순종하는 선교를 감당하는 것이었다, 정탐을 마친 첫 날 첫 사역으로는 약 300명의 초등학생들에게 복음을 우렁차게 합창하도록 하는 은혜를 주셨다, 어느 마을에 있는 보육원에서는 부모님 없이 살아가는 25 명의 티 없이 맑은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게 하셨다, 우기를 맞아 물이 불어난 어느 마을의 길 야편에 수로를 따라 한 가닥 대나무 다리를 건너야만 만날 수 있는 열악한 가정도 축호전도하게 하셨다,

이 모든 일들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주님께서 하게 하신 사역들이다, 어느 마을에서는 우리가 전도한 20여명의 어린아이들이 우리 곁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방문하는 가정마다 큰 소리로 복음을 외치도록 사역을 도와주었다,

운전기사는 이 나라에 영국인 선교사 요르단이 약 200년전에 처음으로 복음을 들고 와서 사역했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언제까지 선교사역을 계속할 것인지 질문하였다, 아마도 90% 인구가 불교인 이 나라에 와서 선교하는 우리의 사역에 대한 의구심을 말하고 있었다,

우리 교회에서는 계속, 계속해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면서 선교사들이 찾아 올 것이라고 막힘없이 대답해 주었다,

서기: 이 희우 장로

주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가슴으로 체험하는 선교였다.

“성령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를 절실히 체험하는 선교였다.

선교는 나의 생각과 뜻 그리고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를 보여주시고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며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보여주셨다,

훈련 기간 중 기도하게 하신 처음 사역지로 인도하시어 첫 번째 정탐사역에서 천진난만한 어린 영혼을 보여 주시고 지금까지 볼 수 없었고 생각지 못한 300 여명의 어린 영혼들 앞에 세워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주님을 영접케 하시고, 말씀과 찬양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참으로 놀라왔다, 주님이 함께하심을 보며 그저 감사 할 뿐이었다.

또한 우리의 발걸음을 25명의 고아들이 믿음으로 성장하고 있는 보육원으로 인도하여 다시 한번 그들이 주님을 영접케 하셨다, 그들은 우리 팀원과 주님 앞에 찬양을 하며 식탁의 교제도 갖었다, 놀라운 것은 보육원에 입소전에 믿었던 불교나 타 종교 아이들이 모든 크리스찬이 되어 주님을 믿는 다는 것이었다, 고아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나 순수하고 천진난만하게 보였다, 믿음으로 아름답게 자라는 아이들이 찬양하는 모습에서, 눈빛에서, 주님의 모습을 보며 나를 돌아보게 하셨다, 나의 가슴은 떨리며 울고 있었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었다,

주님의 날에 2번 째 주일예배를 기사의 집을 방문하여 그들의 친척과 예배를 드릴 때는 주님이 함께 하시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하셨다,

동역자를 보내주시어 믿음의 가정을 방문케 하시며 많은 사역지에서 많은 영혼들을 만날 때마다 팀원들이 하나가 되어 섬기며 복음을 선포케 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케 하셨다,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시어 한 걸음 한 걸음을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하심을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린다,

회계: 김 옥권 장로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마칠 수 있어서 감사하다,
미얀마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복음 전하는데 자유로웠고 불교 국가 인데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잘 받아 들었으며 특히 어린아이들, 학생들의 반응과 열정은 뜨거웠으며(또렷 또렷 한 눈동자와 깨끗하고 총명한 모습은 지금도 저의 마음에 선하다) 개중에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도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 잘 받아 들었고 심지어는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사람들에게 “밍글라바 꺄노 다웅 꼬리야가 라바레”라고 하며 복음을 전했을 때 정중하게 잘 받아들이고 영접기도 까지하고, 아멘 아멘 하는 모습이며 논을 갈기 위하여 소 두 마리를 이끌고 가는 농부에게 접근하여 복음을 전 했을 때 아주 순수하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습, 간혹 성도가 많지 않지만 마을 곳곳에 100년 가량된 교회가 있는 모습을 볼 때 미얀마도 가능성이 있겠구나 느꼈고 감사한 것은 미천한 것을 선교사로 세우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하는 선교였다.

의료: 장 경욱 장로

복음 증거의 귀한 사명을 주시고 미얀마 선교를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영혼을 예비하시고 성령님께서 그들의 심령을 먼저 기경해 주셔서 복음을 전할 때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게 하셨고 매일 매일의 사역을 간섭하셔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사역하게 하셨다, 흐머비가 아닌 마우빈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성령님은 첫 번째 사역부터 300여 명의 초등학생을 만나게 하셔서 주님을 영접케 하셨고 찬양하게 하셨다.

모든 팀원 장로님들이 우리 위해 기도하시는 기도 동역자과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에 힘입어 온전히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만을 붙들고 말씀전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었다,

개인적으로 11번 째 선교 사역이었던 이번 선교가 가장 많은 영혼을 영접하게 한 사역이었고, 영접을 거부한 사람은 나이 많은 몇 사람에게 불과하였다,

모든 팀원이 특별한 환자 없이 영육간에 강건하였고, 팀원 간의 갈등도 전혀 없었으며 성령하나님께서 전부를 감당하신 선교로 우리는 주님의 사용하시는 도구였을 뿐임을 간증합니다.

일평생 주만 바라보며 우리 위해 천국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 담대하게 겸손하게 기쁨으로 주님만 따라 갈 것을 다짐하며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대원: 윤 선한 장로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무한 감사 합니다,
말로다 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은혜로 선교 기간 내내 날마다 한이 없는 주
님의 은혜를 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앞서 인도하시고 죽어가는 백성들을 만나 십자가 복음을 마음껏 전
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죄인 중에 죄인인 저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미얀마 땅에 보내주
시고,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물위에 지어져 있는 집들 까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해 주셨습니다, 집에 올라갈 때 무너져 버릴 것 같은 아주 열악한 곳에서 사는 이 백
성들에게 우리가 전한 복음은 생명을 건지는 큰 사역이었습니다,

이 미얀마 땅에는 우리를 기다리는 예비된 영혼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기 위해 곳곳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총현 교회는 미얀마 땅에 선교사를 많이 파
송할 수 있도록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로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선교 사역을 은혜로 마치게 해주신 주님께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대원: 노 은영 장로

-미얀마 선교를 다녀와서-

하나님은 이미 예비해 두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번에도 선교지에 먼저 오셔서 역사하시고 계셨다, 미얀마 도착 첫날, 우리는 선교 사역 정탐을 나섰다, 마우빈 지역 변두리에서 초등학교를 발견하였다, 오후 세시쯤이라 학교는 이미 수업이 끝나 조용하였다, 그런데 우리가 학교에 들어가니 젊은 여 선생님 두분이 나와서 우리를 반갑게 맞이 해 주셨다, 우리는 여행 중이라고 소개 하면서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방문하고 싶다고 하니까 이게 웬일인가? 한 여 선생님은 한국드라마를 통해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면서 반갑게 승낙해 주셨다.

다음날 아침 10시경 우리는 학교 사역 담당과 축호 전도 담당으로조를 구성하여, 나는 학교 사역을 하게 되었다,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장 경욱 장로, 이 희우 장로와 함께 말씀은 내가 전하기로 하고 학교를 방문하였다, 하나님은 이미 전교사와 전 학생들이 우리를 맞이 하도록 준비하고 계셨다, 책임교사(master teacher)가 어제 보고를 받았다고 하시면서 흔쾌히 교실에 들어가 선교를 하도록 허락해 주었다, 우리는 보통교실 네 칸을 트워놓은 큰 교실에서 300여명의 어린아이들과 선생님이 모여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파하였다, 비록 나의 전도 언어가 어눌할지라도, 성령의 역사 하심으로 내가 전도언어 한 소절을 외치면, 여 선생님 한 분이 똑같이 복창해 주셔서 모든 어린이들과 선생님은 확실히 복음을 알아듣고 영접기도를 다 함께 “아멘”“아멘” 소리로 화답해 주었다, 두 장로님의 클라리넷, 오카리나 연주에 맞춰 나는 “내 주이 보혈은”“예수 사랑하심을”“나의 죄를 씻기는”을 선창하면서 300여명의 어린학생들이 다섯 번씩이나 손뼉치며 찬송을 부르는 모습에서 나는 온 마음이 뜨거워짐을 느끼며, 정말이 자리에 성령이 임하셔서 역사하심을 체험하며, 다시한번 주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는 사실에 감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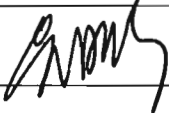
주님! 미얀마 땅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교도구로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이곳은 황금어장입니다, 계속해서 이곳에서 선교가 이어지도록 기도합니다, 선교기간 내내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이곳 미얀마 땅이 과거와 달리 복음을 많이 받아들이고, 언젠가는 전국이 복음화 되리라 확신하면서, 지속적인 선교가 이루어져야 하겠다고 생각 하였다,

현지인 가정과 주일 연합예배 일지

팀명: 장로 1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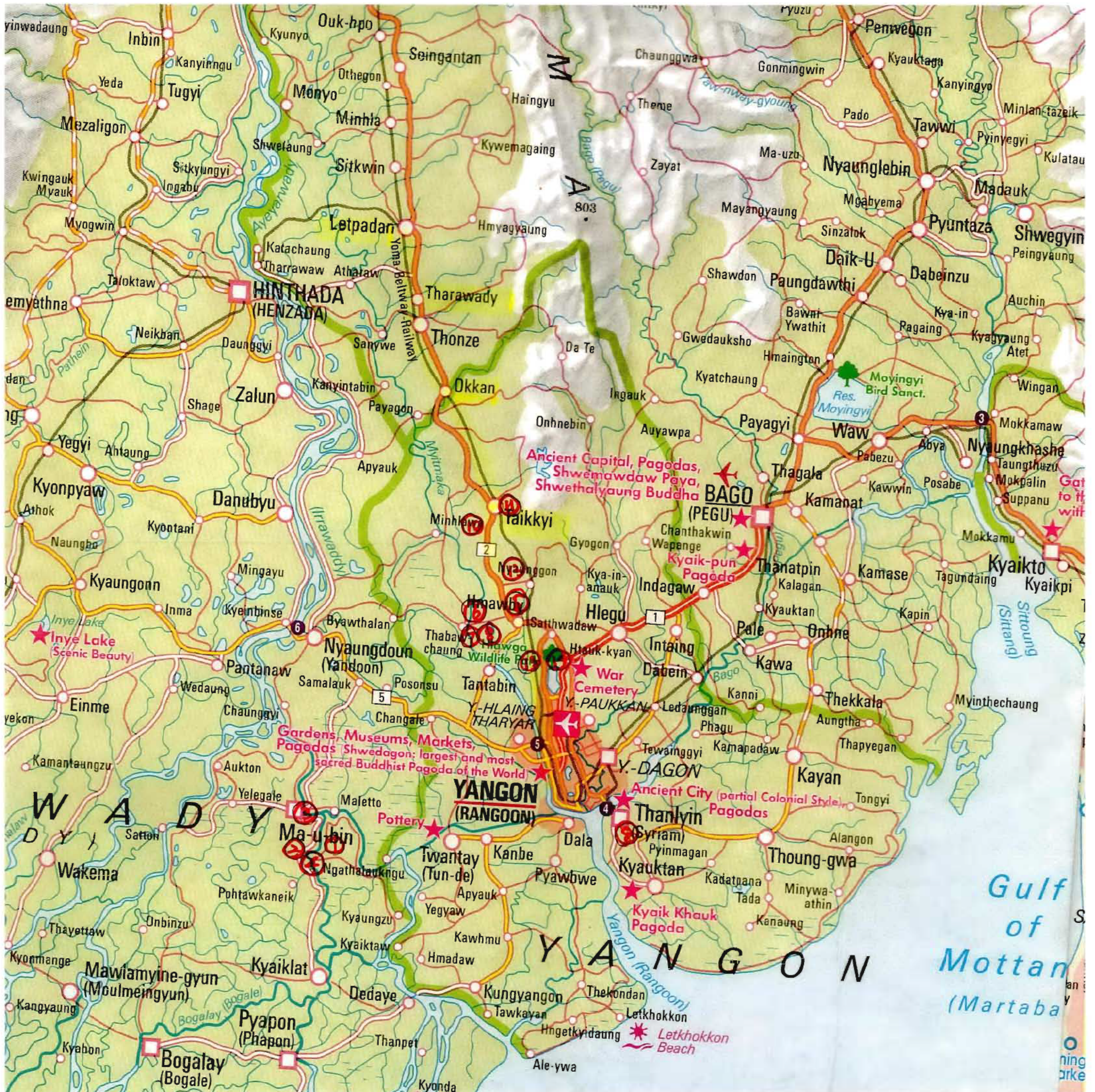
팀원수: 7 명

팀장 : 윤 병식 장로

사역국가: 미얀마(MYANMAR)	사역지: 호머비(HMAWHI)	예배일시: 2013 년 06월 23일 10:00
사 회: 윤 병식 장로 	기 도: 이 희우 장로	설 교: 막 5 : 35 ~ 43
현지인 예배인원: 5 명 / 성인(중학생 이상): 5 명, 어린이(유아포함): 명		
예배순서(성경말씀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기재) 사회 및 설교: 윤 병식 장로, 통역: 서 씨와 묵도----다같이, 찬송---79---다같이, 주기도문----다같이, 기도-----이 희우 장로, 성경봉독--막 5:35~43,--사회자, 찬양-----장경옥 장로 약기연주, 설교 -----윤 병식 장로, 합심기도-----다같이, 찬양--563장(현지어)--다같이, 윤 병식 기도 후 주기도문으로 마침, 폐회선언----사회자, 광고----안 연식장로		
예배평가(분위기 및 특이사항) ※ 은혜가 넘침으로 성령이 역사하는 예배이다 ※ 현지인이 통역하는 관계로 더 열심히 듣는 것 같았다.		
예배장소(다음 팀이 찾아갈 수 있도록 약도를 그려서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마을이름: Yangon Hlaing .전화번호: 95-09420068732 .주소: 189.Baho Lane, Hlaing, Yangon .약도 및 지도는 첨부할 것 .가정의 대표자 이름: Saw Tra Htoo Say .이메일주소: zawminlay. zml@ g-mail.com chitchitmee @ g-mail.com		
문제점 및 개선 사항 . 현지어 찬송과 성경을 구하지 못해서 미안했다. . 예배시 순서 책자가 있으면 좋겠다.		

장르 1권 미얀마 선교

6/18/13 ~ 6/26/13



13-26

단기선교 지출내역 종합표

파송국: 미얀마

팀 장: 윤병식 장로

기 간: 2013.6.18 - 2013.6.26 (8박9일)

수 입		과 목	지 출			
USD	원 화		원 화	USD	현지화A	현지화B
	2,674,000	1.항공료 교회보조	2,674,000			
	2,674,000	2.항공료 개인부담	2,674,000			
	200,000	3.준비비	156,000			
2,205	2,205,000	4.현지 사역비 ①~④합계	1,826,794	1,395.00	411,500.00	
		①숙박비	735,000	595.00	133,420.00	
		②식 비	291,794		278,080.00	
		③교통비	800,000	800.00		
		④기 타				
		5. 소 계 (1~4합계)	7,330,794	1,395.00	411,500.00	
		6.준비비 반납금액	44,000			
		7.사역비 반납금액	378,206	310.00	65,000.00	
		8.조정 계정				
2,205	7,753,000	총 계(5~8합계)	7,753,000	1,705.00	476,500.00	

감사위원 소견

감사필

감사위원 : (인)

팀 장 : 윤병식 장로 (인) 연 락 처
총 무 : 안연식 장로 (인) 연 락 처
회 계 : 김옥권 장로 (인) 연 락 처



충현교회 감사위원회 귀중
양식 #6

단기선교 사역비 지급내역

파송국	미얀마			부 서	장로1팀			
팀장	윤병식 장로		사역인원수	7명		1인1일사역비	₩35.000	
기간	2013년 6월 18일		~	2013년 6월 26일		사역일수	8 박 9 일	
항공료	교회보조	₩ 2,674,000			개인부담	₩ 2,674,000		
수령사역비 총액	외화금액		원화금액					
	\$2,205.00		₩2,205,000					
사무국 확인		확 인						
		일 자		2013.06.30				

잔액 반납 확인서

No. 1

영 수 증

내용 윤병식팀 미얀마

정산 사역비 정산(외환)

₩	₩44,000
\$	\$310.00
€	
CNY	
기타	65000짖

상기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2013년 7월 7일

대한예수교 **충현교회**
장로회

담당 홍성은 

단기선교 사역비 지급내역

파송국	미얀마			부 서	장로1팀		
팀장	윤병식 장로		사역인원수	7명		1인1일사역비	₩35,000
기간	2013년 6월 18일		~	2013년 6월 26일		사역일수	8 박 9 일
항공료	교회보조	₩ 2,674,000			개인부담	₩ 2,674,000	
수령사역비 총액	외화금액		원화금액			(인)	
	\$2,205.00		₩2,205,000				
사무국 확인		확 인					
		일 자	2013.06.30				

잔액 반납 확인서

* 사역 후 준비비와 사역비의 잔액을 사무국에 반납하고 받으신 "잔액 반납 확인서"를 이곳에 붙입니다.

원화	₩44,000
달러	\$310.00
현지화	65,000

구분	성명	연락처(휴대폰)
팀 장	윤병식	
총 무	안연식	
회 계	김옥권	

환전 내용

1. 현지화1

일자	매도통화	매입통화	적용환율	환차손	환차손 원화상당액
2013-6-19	\$ 100.00	95,700	957.00		
	\$ 400.00	380,800	952.00		
합 계	\$ 500.00	476,500	953		

2. 현지화2

일 자	매도통화	매입통화	적용환율	환차손	환차손 원화상당액
합 계	\$ -	0	0		

3. 적용환율

USD 1\$	1000.00
현지화A(1달러당)	953.00
현지화B(1달러당)	0.00

단기선교 준비비 사용 내역서

1. 수입 내역

순위	일자	내역	금액(W)	비고
1	2013-06-16	준 비 비	200,000.00	

2. 지출 내역

순위	일 자	내 역	금 액(W)	비 고
1	2013-6-18	공항에서 식사	54,000.00	
2	2013-6-26	리무진 교통비	102,000.00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합 계	156,000.00	

단기선교 사역비 과목별 지출 내역서

1. 숙박비

※ 사역기간: 2013년 6월 18일 ~ 2013년 6월 26일

순위	일자	내역			금액		비고
		숙소명	전화번호	주소	US\$	현지화	
1	2013-6-18	silver moon htl	01-524498		95.00		룸3 (1일)
2	2013-6-19~20	shwe thiri	05-30086		160.00		룸4 (2일)
3	2013-6-21~24	pyisan yar	09-4333-7777		340.00	133,420.00	룸4 (4일)
4							
5							
6							
7							
8							
9							
10							
11							
12							
13							
소계		총 일간			\$595.00	133,420.00	₩735,000
		1일 평균			\$ 66.11	14,824.44	₩81,667

2. 식비

2-1. 주부식비

순위	일자	내역			금액		비고
		조식	중식	석식	US\$	현지화	
1	2013-6-19		o			18,300.00	
2	2013-6-19			o		10,600.00	
3	2013-6-20	o				11,800.00	
4	2013-6-20		o			5,700.00	
5	2013-6-20			o		12,500.00	
6	2013-6-21	o				5,000.00	
7	2013-6-21		o			12,800.00	
8	2013-6-21			o		17,700.00	
9	2013-6-22		o			14,900.00	
10	2013-6-23		o			27,300.00	
11	2013-6-23			o		19,300.00	
12	2013-6-24		o			13,500.00	
13	2013-6-24			o		18,100.00	
14	2013-6-25		o			16,100.00	

15	2013-06-25		o		25,200	
소 계		총 일간		\$ -	228,800.00	₩240,084
		1일 평균		\$ -	25,422	₩26,676

2-2. 기타부식비

순위	일자	내역	금 액		비고
			US\$	현지화	
1	2013-6-19	생수등		38,410.00	
2	2013-6-23	과일		9,000.00	
3	2013-6-24	과일		1,870.00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소 계		총 일간	\$ -	49,280.00	₩51,710
		1일 평균	\$ -	5,475.56	₩5,746

3. 교통비

순위	일자	내역	금 액		비고
			US\$	현지화	
1	2013-6-18~26	렌터카 사용료	800.00		
2					
3					
4					
5					
6					
7					
8					
9					
10					

소 계	총 일간	\$800.00	-	₩800,000
	1일 평균	\$ 88.89	-	₩88,889

4. 기 타

순위	일자	내 역	금 액		비고
			US\$	현지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소 계		총 일간	\$ -	-	₩0
		1일 평균	\$ -	-	₩0

2013-26

장로 1 팀 단기선교 사역 보고서

1. 기 간 : 2013 년 06 월 18 일(화) ~ 2013 년 06 월 26 일(수) (8 박 9 일)
2. 국가/사역지역 : 미얀마(Myanmar) 흐머비(Hmawhi)지역
3. 교구/교회학교 : 장로 1 팀
4. 팀 장 : 윤 병 식 (서명) 서기 : 이 희 우 (서명)
5. 보고일자 : 2013년 06 월 30 일
6. 보고내용 :

1. 사역에 대한 총평	※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면 미얀마(Myanmar)땅은 복음화 될 것이다. (동남아 다른 나라보다 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복음을 받았다) ※ 200년 전에 복음이 전파된 관계로 가는 곳마다 교회 있었다. (양곤 시내에 신학교가 있다) ※ 현지인과 주일 예배는 은혜가 넘쳤다. ※ 예비된 영혼들이 사역지 마다 있었다,
2. 추천할 내용	※ 계속해서 기도하고 중단없는 선교가 되도록 가는 선교사가 많았으면 좋겠다,
3. 회개할 내용	※ 인간의 계획을 먼저 생각하고 행한 것을 회개한다. (사역 7일 때 고등학교 사역을 돌아오면서 하기로 한 것)
4. 선교위원회앞 건의사항	※ 현지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중, 장기 선교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 외선부 출신 현지인을 적극 활용 방안 간구가 시급한 것 같다,

7. 현지 정보

• 정치/경제	군사과도정부, 경제는 우리나라 70년대 수준으로 개발중임	• 종교상황 • 치안상황	불교89%,기독교6%이슬람4% 어려움 없음.
• 성경/찬송가/지도 구입경로	지도는 선교위에서 복사한 것으로 사용.		
• 교회에서 배운 선교언어 현지인의 이해 정도	대부분 잘 이해 했다, “잠시 시간 좀 내주시겠습니까?”말에는 반응이 없다, 그 이유는 항상 시간이 있기 때문인지 무반응		
• 운전기사 성명 및 추천 여부	성명	서 씨와(Say Wha)	
1일 비용	\$ 100	☎	094-211-30539
총 비 용	\$ 800	이메일	없음
기사평가	지속적으로 사역 동역자로 가능함,		

8. 추천하고 싶은 숙박시설에 대한 정보

도시 및 호텔명	요금(USD)		시설내역(유/무)		☎ 또는 이메일
Yangon	2인실	30	온수	0	☎ 01-524498
Silver Moon	3인실	35	냉방	0	
Hotel			조식	0	
Maubin	2인실	20	온수		☎ 045-30086,422495514
Shwe Thiri	3인실		냉방	0	
Guest House			조식		
Yangon	2인실	30	온수		☎ 09-43337777, 09-73154673
Shwe Pyi San Yar	3인실		냉방	0	
Hotel			조식	0	
숙소 평가	선교하기에는 적합함				

9. 사역 경로

사역지	숙소에서 이동거리(KM)	이 동 소요시간	사역지 향후 전망 및 현지인 반응	교회 유무	전도방법
1.Maubin(마우빈) 지역					
Maletto 마을 북쪽방편	10km	30분	매우 긍정적이며 친절함	유	학교전도, 축호,노방
Maletto 마을 남쪽방편	10km	30분	매우 부정적이며 거부함	무	축호,노방
Maubin 시내 중심지	4km	15분	50% 정도 긍정적	유	축호,노방
Yele 수상마을	20km	50분	70% 정도 긍정적	무	축호,노방
2.Hmawbi(호머비) 지역					
Thar Yar Gone 마을	30km	45분	매우 긍정적	무	축호,노방
San Pya 마을	28km	40분	긍정적	무	축호,노방
Thanlyin 마을	49km	70분	80% 긍정적	무	축호,노방
Talkkyi 마을 (시내 중심쪽)	50km	90분	50% 긍정적	무	축호,노방
Talkkyi 마을 (Hmawbi 쪽)	53km	90분	50% 긍정적	유	축호,노방
Dissu 마을	53km	90분	50% 긍정적	무	축호,노방
Hmawbi 지역 동쪽방편	70km	110분	매우 긍정적	유	축호,노방
Hmawbi 지역 남쪽방편	40km	60분	긍정적	무	축호,노방

10. 향후 인터넷 선교 가능한 피 접촉자 정보

성명	F-Mail 주소	영어능력(상/중/하)
Nilar win		하
Hnin Yee Hlaing		하
Naw Maw Maw		상
Hlaing		상
Saw Thar		상

11. 소감문

1) 팀장: 윤 병식 장로

사역 1일째 (06월18일 화)

말씀과 섬김으로 하나된 우리는 성령이 허락하신 사역지를 향해 주신 “허락한 땅에 오직 생명력있는 예수 그리스도만 심고 오라”는 주님의 음성을 묵상하며 성령의 인도따라 가길 원하며 첫 걸음을 내딛었다.

사역 2 일째 (06월19일 수)

성령은 우리들에게 흐머비(Hmawby)에서 마우빈(Maubin)지역으로 변경해서 허락하셨다. 마우빈(Maubin)지역을 두고 팀원들이 3 개월 동안 기도한 지역이 인간의 계획에 인해 출발 일 주일 전에 변경했지만 성령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성령의 계획대로 마우빈(Maubin)지역에서 사역을 시작했다, 초등학교에 방문해서 내일 와서 복음을 전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고, 축호전도, 노방전도를 통해서 만날 예비된 영혼들을 보고서 이곳까지 인도하시는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2 일째날 사역이었다.

사역 3 일째 (06월20일 목)

말라두(Moletto)초등학교에서 300명 정도 학생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열정적인 선교사님들의 모습과 그 말씀을 듣는 어린 이방인들의 눈동자가 함께 하니 오직 예수님만 있는 현상이었다, 또 다른 대원들은 학교 주변 동네를 다니며 축호전도, 노방전도로 은혜가 넘치는 오전 사역이었다, 오후에는 수상가옥과 척박한 동네 엘리(Yele)에서 복음을 전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귀를 기울이는 그들의 모습에 나의 나태한 신앙생활을 뒤돌아보며 주님을 따르는 종의 모습으로 살겠다고 회개하며 결심하는 3 일째날 사역이었다.

사역 4 일째 (06월21일 금)

식당과 호텔 종사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허락하신 흐머비(Hmawby)로 향했다, 장대같이 내리는 비속에서도 주님이 예비해 놓은 16세 애 산다르(Ate Sund Naing)란 소녀는 TV를 보고 한국말을 배웠다며 약간은 어려움은 있었지만 오래 간만에 한국어로 그녀에게 복음을 전했다, 나의 언약함(미얀마어)을 아시고 그녀에게 한국어로 복음을 전하게 하신 성령님께 감사하면 4일 째 사역을 마쳤다,

사역 5 일째 (06월22일 토)

아! 덥다, 그러나 말씀을 들고 가야한다, 성령이 허락하신 보육원으로. 그곳에는 25 명의 어린 영혼들에게 말씀과 기도와 우리가 준비해 간 찬양으로 그들의 마음을 열게하니 그들이 우리들에게 자기들의 찬양으로 우리 어여쁜 천사들의 모습을 보여 주었다, 보육원장선생님은 “이 어린 아이들이 불타(불교)의 자녀에서 지금은 다 주님을 영접했다고 하니 이것이 바로 할렐루야! 오후 사역지에서 교회를 보았다,(100년 된 교회) 그러나 그 주위에 사는 사람들이 주님을 믿지 않고 있었다. 40대 아주머니의 손을 잡고 복음을 전할 때 처음에는 거부하는 모습에서 아멘으로 영접하는 심령, 초등학생들에게 한국어로 “예수 믿으세요”를 가르쳐 “더킨예슈교 용지바”와 “예수 믿으세요”외치며 온 동네를 다녔다, 이 모습에 자꾸만 눈물이 나온다,

사역 6 일째 (06월23일 주)

주일이다, 주일예배를 드리고 우리들에게 운전으로 동역하는 서싸와(Say Wha) 집으로 가서 그의 일행 4명과 함께 현지어로 예배를 드렸다, 한국어로 설교하면 미얀마어로 통역 설교를 하니 지금까지 한번도 못해 본 사역이라 은혜가 넘치는 주일이다,

사역 7 일째 (06월24일 월)

제 3 의 사역지 타이키(Taikkyi)를 향해 가는 도중 고등학교를 보고 돌아오면서 사역하기로 하고 마을로 향했다, 그 마을에서 사역이 끝난 쯤 예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 그 동네 최고 지도자가 나타나 우리들을 검문하는 것이다, 잠시 긴장을 했지만 이 나라 법에는 복음을 전하고자 하면 허가를 받아야 한단다, 그것을 알게 하신 주님! 너무 사역이 잘 되어 교만할 뻔한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했다, 이곳에도 참 오래 된 교회가 있었다, 두 명의 자매가 온 동네를 우리와 같이 다니면 복음을 전했고 교회 앞뜰에서 서로 손잡고 통성기도하니 이곳이 바로 천국이구나, 돌아오는 길에 고등학교에는 교통경찰들이 있어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 이것이 인간의 계획과 주님의 계획이 다르니 아닐까? 인간의 생각을 먼저 한 것을 회개하는 하루였다.

사역 7 일째 (06월24일 월)

사역 마지막 장소는 미얀마 최고의 엘리트들이 다니는 양곤(Yangon)대학교를 갔다, 이 나라를 이끌어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이들이 변화 되어야 미얀마 땅이 빨리 복음화 되겠다는 기도로 사역을 시작했다, 영어로, 미얀마어로 복음을 전하니 참 좋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이 지나면 이곳에서 만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그리며 고국에서 이 미얀마 땅이 주의 나라로 변화되길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나의

모습을 그려보며 장로 1팀 미얀마 단기선교 사역은 주님이 계획하시고, 행하시고, 모든 영광은 주님께
게 있음을 고백하며 이 사역을 마쳤다.

2) 총무: 안 연식 장로

이번 선교 기간 동안 우리 팀원 모두가 가장 먼저 내놓은 기도제목은 인간된 우리 자신의 안목이 아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순종하는 선교를 감당하는 것이었다,

정탐을 마친 첫 날 첫 사역으로는 약 300명의 초등학생들에게 복음을 우렁차게 합창하도록 하는 은혜
를 주셨다, 어느 마을에 있는 보육원에서는 부모님 없이 살아가는 25 명의 티 없이 맑은 어린아이들에
게 복음을 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게 하셨다,

우기를 맞아 물이 불어난 어느 마을의 길 양편 수로를 따라 한 가닥 대나무 다리를 건너야만 만날 수
있는 열악한 가정도 축호전도하게 하셨다,

이 모든 일들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주님께서 하게 하신 사역들이다,

어느 마을에서는 우리가 전도한 20여명의 어린아이들이 우리 곁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방문하는 가정마
다 큰 소리로 복음을 외치도록 사역을 도와주었다,

운전기사는 이 나라에 영국인 선교사 요르단이 약 200년전에 처음으로 복음을 들고 와서 사역했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언제까지 선교사역을 계속할 것인지 질문하였다, 아마도 90% 인구가 불교인 이 나라
에 와서 선교하는 우리의 사역에 대한 의구심을 말하고 있었다,

우리 교회에서는 계속, 계속해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면서 선교사들이 찾아 올 것이라고 막힘없이 대
답해 주었다,

3) 서기: 이 희우 장로

주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가슴으로 체험하는 선교였다.

“성령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를 절실히 체험하는 선교였다.

선교는 나의 생각과 뜻 그리고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를 보여주시고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
시며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보여주셨다,

훈련 기간 중 기도하게 하신 처음 사역지로 인도하시어 첫 번째 정탐사역에서 천진난만한 어린 영혼을
보여 주시고 지금까지 볼 수 없었고 생각지 못한 300 여명의 어린 영혼들 앞에 세워주시고 그들로 하
여금 주님을 영접케 하시고, 말씀과 찬양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참으로 놀라왔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보며 그더 감사 할 뿐이었다.

또한 우리의 발걸음을 25명의 고아들이 믿음으로 성장하고 있는 고아원으로 인도하여 다시한번 그들이
주님을 영접케 하셨다, 그들은 우리 팀원과 주님 앞에 찬양을 하며 식탁의 교제도 갖었다, 놀라운 것은
고아원에 입소전에 믿었던 불교나 타 종교 아이들이 모든 크리스찬이 되어 주님을 믿는 다는 것이었다,
고아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나 순수하고 천진난만하게 보였다, 믿음으로 아름답게 자라는 아이들
이 찬양하는 모습에서, 눈빛에서, 주님의 모습을 보며 나를 돌아보게 하셨다, 나의 가슴은 떨리며 울고
있었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었다,

주님의 날에 2번 째 주말예배를 기사의 집을 방문하여 그들의 친척과 예배를 드릴 때는 주님이 함께 하
시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하셨다, 동역자를 보내주시어 믿음의 가정을 방문케 하시며 많은 사역
지에서 많은 영혼들을 만날 때마다 팀원들이 하나가 되어 섬기며 복음을 선포케 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케 하셨다,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시어 한 걸음 한 걸음을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하심을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린다,

4) 회계: 김 옥권 장로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마칠 수 있어서 감사하다,

미얀마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복음 전하는데 자유로웠고 불교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잘 받아
들었으며 특히 어린아이들, 학생들의 반응과 열정은 뜨거웠으며(또렷 또렷 한 눈동자와 깨끗하고 총명
한 모습은 지금도 저의 마음에 선하다) 개종에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도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 잘 받아
들었고 심지어는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사람들에게 “밍글라바 찌노 다웅 꼬리야가 라바레”라

고 하며 복음을 전했을 때 정중하게 잘 받아들이고 영접기도 까지하고, 아멘 아멘 하는 모습이며 논을 갈기 위하여 소 두 마리를 이끌고 가는 농부에게 접근하여 복음을 전 했을 때 아주 순수하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습, 간혹 성도가 많지 않지만 마을 곳곳에 100년 가량된 교회가 있는 모습을 볼 때 미안마도 가능성이 있겠구나 느꼈고 감사한 것은 미천한 것을 선교사로 세우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하는 선교였다.

5) 의료: 장 경옥 장로

복음 증거의 귀한 사명을 주시고 미안마 선교를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영혼을 예비하시고 성령님께서 그들의 심령을 먼저 기경해 주셔서 복음을 전할 때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게 하였고 매일 매일의 사역을 간섭하셔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사역하게 하셨다, 호머비가 아닌 마우빈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성령님은 첫 번째 사역부터 300여 명의 초등학생을 만나게 하셔서 주님을 영접케 하였고 찬양하게 하셨다.

모든 팀원 장로님들이 우리 위해 기도하시는 기도 동역자와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에 힘입어 온전히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만을 붙들고 말씀전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었다,

개인적으로 11번 째 선교 사역이었던 이번 선교가 가장 많은 영혼을 영접하게 한 사역 이였고, 영접을 거부한 사람은 나이 많은 몇 사람에게 불과하였다,

모든 팀원이 특별한 환자 없이 영육간에 강건하였고, 팀원 간의 갈등도 전혀 없었으며 성령하나님께서 전부를 감당하신 선교로 우리는 주님의 사용하시는 도구였을 뿐임을 간증합니다.

일평생 주만 바라보며 우리 위해 천국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 담대하게 겸손하게 기쁨으로 주님만 따라 갈 것을 다짐하며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6) 대원: 윤 선한 장로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무한 감사 합니다,

말로다 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은혜로 선교 기간 내내 날마다 한이 없는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를 앞서 인도하시고 죽어가는 백성들을 만나 십자가 복음을 마음껏 전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죄인 중에 죄인인 저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미안마 땅에 보내주시고,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물위에 지어져 있는 집들 까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해 주셨습니다, 집에 올라갈 때 무너져 버릴 것 같은 아주 열악한 곳에서 사는 이 백성들에게 우리가 전한 복음은 생명을 건지는 큰 사역이었습니다,

이 미안마 땅에는 우리를 기다리는 예비된 영혼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기 위해 곳곳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충현 교회는 미안마 땅에 선교사를 많이 파송할 수 있도록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로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선교 사역을 은혜로 마치게 해주신 주님께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7) 대원: 노 은영 장로

하나님은 이미 예비해 두셨다

-미안마 선교를 다녀와서-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번에도 선교지에 먼저 오셔서 역사하시고 계셨다, 미안마 도착 첫날, 우리는 선교 사역 정탐을 나셨다, 마우빈 지역 번두리에서 초등학교를 발견하였다, 오후 세시쯤이라 학교는 이미 수업이 끝나 조용하였다, 그런데 우리가 학교에 들어가니 젊은 여 선생님 두분이 나와서 우리를 반갑게 맞이 해 주셨다, 우리는 여행 중이라고 소개 하면서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방문하고 싶다고 하니까 이게 웬일인가? 한 여 선생님은 한국드라마를 통해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면서 반갑게 승낙해 주셨다.

다음날 아침 10시경 우리는 학교 사역 담당과 축호 전도 담당으로 조를 구성하여, 나는 학교 사역을 하게 되었다,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장 경옥 장로, 이 희우 장로와 함께 말씀은 내가 전하기로 하고 학교를 방문하였다, 하나님은 이미 전교사와 전 학생들이 우리를 맞이 하도록 준비하고 계셨다, 책임교사

(master teacher)가 어제 보고를 받았다고 하시면서 흔쾌히 교실에 들어가 선교를 하도록 허락해 주었다, 우리는 보통교실 네 칸을 트워놓은 큰 교실에서 300여명의 어린아이들과 선생님이 모여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파하였다, 비록 나의 전도 언어가 어눌할지라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내가 전도언어 한 소절을 외치면, 여 선생님 한 분이 똑같이 복창해 주셔서 모든 어린이들과 선생님은 확실히 복음을 알아듣고 영접기도를 다 함께 “아멘”“아멘” 소리가 높여 화답해 주었다, 두 장로님의 클라리넷, 오카리나 연주에 맞춰 나는 “내 주이 보혈은”“예수 사랑하심을”“나의 죄를 씻기는”을 선창하면서 300여명의 어린학생들이 다섯 번씩이나 손뼉치며 찬송을 부르는 모습에서 나는 온 마음이 뜨거워짐을 느끼며, 정말 이 자리에 성령이 임하셔서 역사하심을 체험하며, 다시한번 주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는 사실에 감사하였다.

주님! 미얀마 땅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교도구로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이곳은 황금어장입니다, 계속해서 이곳에서 선교가 이어지도록 기도합니다, 선교기간 내내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이곳 미얀마 땅이 과거와 달리 복음을 많이 받아들이고, 언젠가는 전국이 복음화 되리라 확신하면서, 지속적인 선교가 이루어져야 하겠다고 생각 하였다.

4교구 2 팀 단기선교 사역 보고서

1. 기 간 : 2013년 6 월 18 일(화) ~ 2013 년 6 월 26 일(수) (8박 9일)
2. 국가/사역지역 : 미얀마 (바고)
3. 교구/교회학교 : 4 교구 / 2 팀
4. 팀 장 : 김정배 (서명) jung 서기 : 남상겸 (서명) nam
5. 보고일자 : 2013년 6월 29일
6. 보고내용 :

1. 사역에 대한 총평	성령 하나님 인도하심 가운데 선교사역을 잘 마무리 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하신 것 임 을 고백하며 함께 동역한 선교 동역자들 에게도 감사드리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십자가 복음 증인으로써의 삶을 살아 갈 것을 다짐 합니다.
2. 추천할 내용	바고근처 나다얀 마을에 샤뭏이라는 자매의 숙모집 교회 개척가능
3. 회개할 내용	적극적인 복음전도 못함 (비 온다는 핑계로)
4. 선교위원회앞 건의사항	

7. 현지 및 기사 정보

• 정치/경제		군사정권(민주주의 과 도기)		• 종교상황 • 치안상황		매우안정	
• 교회에서 배운 선교언어 현지인의 이해 정도		잘 이해함					
* 기 사 정 보		성명	joy (조이)		차종	7인승 미니벤	
1일 비용		☎			추천 여부	적극 추천 () 보통 추천 (0) 적극 반대 () 한국어 가능 () 영어 가능 ()	
총 비 용	\$800	이메일					
기사 평가	매우 친절하고 성실함 (외국인 가이드 자격 소지자 기사 원함)						

8. 추천하고 싶은 숙박시설에 대한 정보

도시 및 호텔명	요금(USD)		시설내역(유/무)		☎ 또는 이메일	
siver moon	2인1실	\$30	온 수		☎	01-524498
	3인1실		냉 난 방		이메일	
	기타		아침식사	유		
숙 소 평 가	아주 시끄럽고 불편함					
GANDAMAR	2인1실	\$30	온 수		☎	052-201630
	3인1실		냉 난 방		이메일	
	기타		아침식사	유		
숙 소 평 가	숙박비 저렴 (조용한 호텔)					

9. 사역 경로

사역지	숙소에서 이동거리(KM)	이 동 소요시간	사역지 향후 전망 및 현지인 반응	사 역 지 교회유무	전도방법
2013-6-19 피알리고마을	2KM	20분	500가구정도 시장근처 바고변두리(부처의언덕)		1:1 전도 축호전도
2013-6-20 묘땃마을	2KM	30분	피알리고마을(마젠댐근처)		1:1 전도 축호전도
2013-6-21 지아와마을	40KM	60분	만달라이 방향 비엠봉지집(정식식사))	가능	1:1 전도 축호전도
2013-6-22 지이나마을	30KM	30분	바고북쪽 신도시 파이에고(기독교청년)		1:1 전도 축호전도
2013-6-23 나타얀마을	10KM	15분	샤웃이라는 자매 만남 숙모집 교회가능	가능	1:1 전도 축호전도
2013-6-24(월)	40KM	60분	바고남쪽 쩌단마을 기차 역있음(과일농장만음)		1:1 전도 축호전도
2013-6-25(화)	양곤이동	오전	양곤 이동 하면서 학교사 역		1:1전도 노방전도

10. 향후 인터넷 선교 가능한 피 접촉자 정보

성명	E-Mail 주소	영어능력(상/중/하)

11. 소감문 및 회계자료 (첨부)